

# 소비자물가, 농산물·유가 '고공행진'

농산물 14.4% ↑ · 수산물 3% ↑ · 석유 6.5% ↑ · 외식 2.5% ↑

도시가스 인하 효과 소멸에 전기·수도·가스 등 1.5%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농산물과 석유류가 급등한 탓이다. 지난해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기·수도·가스가 오른 여파도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지난 10월(2.0%) 이후 두 달 연속 2%대로 오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한 것은 지난해 7~9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로 2.2%, 8월 2.6%, 9월 2.1% 상승했다가 10월(1.8%)에 1%대로 상승 폭을 좁인 뒤 12개월째 1%대를 유지해왔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보다 7.5% 올라 전체 물가를 0.6%포인트 높이는 역할을 했다.

채소류 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14.1% 뛰면서 농산물이 14.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6%포인트 끌어올렸다.

수산물은 3.0% 올라 전체 물가를 0.04%포인트 상승 견인했다. 축산물만 1.5% 내려 0.04%포인트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주요 등락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중에서는 토마토(44.4%), 파(35.6%), 현미(25.5%), 쌀(23.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양파(-27.4%), 달걀(-14.3%), 오이(-8.9%), 블루베리(-6.4%), 고등어(-6.3%), 미늘(-5.6%) 등은 하락했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보다 6.5%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3%포인트 끌어올렸다. 등유(16.4%), 경유(9.1%),

휘발유(5.1%)가 모두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 탓에 공업제품은 1.5% 올라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 상승 견인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로 공업제품 상승 폭은 전월(2.0%)보다 축소됐다. 석유류 오름폭도 전월(11.8%)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유류세 인하 영향을 받지 않는 등유(1.8%)를 제외하고는 경유(-2.9%)와 휘발유(-4.5%)가 일제히 내렸다.

전기·수도·가스는 1.5% 올라 전체 물가를 0.06%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해 도시가스 인하 효과가 소멸된 탓이다.

물가지수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서비스가격은 1.5%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82%포인트 높였다. 집세가 전셋값(1.0%) 상승 여파로 0.4%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외식(2.5%)과 공동주택관리비(4.0%), 가사도우미료(11.4%)가 오르면서 2.5%나 뛰었다. 공공서비스만 전년 동월과 변동이 없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1% 상승했다.

식품은 3.4%, 식품 이외는 1.5%,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1.9% 각각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동월보다 10.4%나 뛰었다. 신선채소와 신선과일, 신선어개가 각각 14.3%, 12.0%, 2.5% 오른 탓이다.

장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월 동월보다 1.1% 올랐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2%대로 상승한 것은 14개월 만인데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찾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물가당국은 가격 강세를 보이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보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전체 물가는 물가 안정 목표인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9~11월은 폭염 여파와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며 1~8월 대비 다소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 비축농산물 방출 등을 통해 수급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최근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400조 돌파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쉽게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습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곳의 지난 11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1조933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1736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월 2조8777억원, 10월 2조1262억원으로 내려앉으며 차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나 지난달 다시 불어난 것이다. 이는 올들어 최대폭으로 올 평균 증가액(1조9123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미 취급된 집담대출 전세자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

는데다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데다 매매계약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통상 두세달 뒤에 잔금 대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확대 영향으로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566조 3473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5474억원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올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향후 정부 규제 압박이 본격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더해져 내년초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6%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

## “일자리 양극화, 30~54세 핵심 고졸·중숙련 男노동자 밀어내”

한은 BOK이슈노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보고서

일자리 양극화가 30~54세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에 실린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2009년중 3.1%p 하락했다가 2010~2017년중 0.8%p 소폭 반등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 노동연령층은 남성의 군복무, 높은 대학 진학률 등을 감안해 30~54세로 규정됐다.

이들 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것은 일자리가 양극화가 심해진 탓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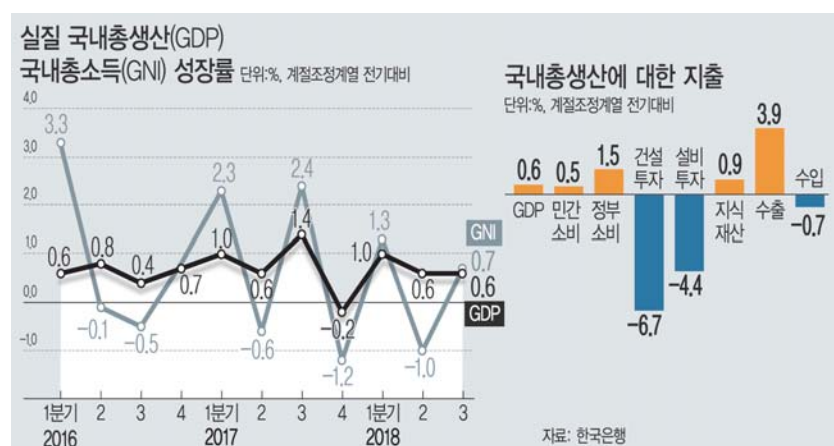
글로벌화로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중숙련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비중 자체가 낮아진데다, 최근 들어 산업내 기술진보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고숙련·저숙련 일자리만 늘어나다보니 중숙련 일자리에 근무하던 주요 고졸 이하의 핵심 연령층 근로자들은 저숙련 일자리로 밀려나거나,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장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가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고졸 이하 핵심 연령층 남성의 중숙련 일자리 비중은 1994~2003년중 10.7%p 하락했고 2004~2017년중 13.8%p 내리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 이상 고숙련 일자리가 각 4.8%p, 4.6%p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도 1.8%p, 3.3%p 감소에 지나지 않았다.

뉴스

## ‘성장동력 급랭’ 3분기 성장률 0%대...국민총소득 0.7% ↑



3분기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0%대에 그쳤다. 설비투자 부진 등 성장동력이 차갑게 식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속보치와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1.0% 성장률에서 2·3

분기 연속 0.6%로 내려앉으며 0%대 분기 성장이 다시 끊어진 모습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0% 성장했다.

앞서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려면 남은 4분기에는 0.82% 이상 성장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3.9%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1분기(4.4%) 이후 2분기만에 최고치였다. 수입은 화학제품이 늘었으나 기계류 등이 줄어 0.7% 감소했다.

내수는 부진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6.7% 감소했다. 속보치에 비해

2분기 수준(0.3%) 보다는 확대됐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0.7% 증가했다.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2분기 -1.0%로 뒷걸음질쳤다가 3분기 다소 회복된 것이다.

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됐음에도 국외순취급요소소득이 2분기 2조1000억원 적자에서 3분기 3000억원 흑자로 바뀐 영향이다.

명목 국민총소득(GND)은 전분기 대비 1.9% 증가했다.

총저축률은 35.4%로 전기보다

실질 국내총생산 0.6% 성장 · 실질 국민총소득 0.7% ↑

건설투자 추락...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

0.2%p 후퇴했다.

이는 지난 1998년1분기(-0.7%) 이후 20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설비투자도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4.4% 줄었다. 소비는 정부소비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로 1.5% 늘었다. 민간소비는 0.5% 증가했다.

뉴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